



675 Dursey Lane / Des Plaines IL 60016 사무실: 847-699-6334

Email: stpaulchong@stpaulchong.org Website: <http://www.stpaulchong.org>

주임 신부 대리 | Very Rev. Esequiel Sanchez 본당수녀 | 한인숙 아가다 / 김미경 마리아 평협회장 | 양희영 알렉산더

설

| 제 1 독서 | 민수기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 화답송 |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 제 2 독서 | 야고보서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이번주일		입당 416		봉헌 512, 513		성체 174		파견 399
------	--	--------	--	-------------	--	--------	--	--------

이번주일 (교중미사)		입당 416		봉헌 340, 511		성체 170		파견 436
-------------	--	--------	--	-------------	--	--------	--	--------

사무실 안내

주일: 오전 7:30 - 오후 12:30
화, 수, 금: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6:30

미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7 시
교중 9 시, 영어 10:30
토요 특전: 오후 5 시

학교

주일학교: 11:45 - 12:30
하상한국학교: 9:30 - 12:30

본 당 소 식

주일미사 집전사제 안내

- 1/21 5PM: 임용우 신부님
- 1/22 7AM, 9AM: 임용우 신부님
- 1/22 10:30AM: Fr. Sanchez

평일 미사 안내

- 1/24 (화) 7PM 화요미사
- 1/25 (수) 10AM 수요미사
- 1/26 (목) 10AM 공소예절
- 1/27 (금) 10AM 금요미사
- 미사집전: 유승원 신부님

설날 합동위령미사

조상님들이 하느님 나라에 오르실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상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일시: 1월 21일, 22일

환자영성체

일시: 2월 1일 (수)

신청: 수녀님 혹은 사무실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 (목) 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해동안 사용할 전례용품이나 제대꽃 헌화비를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병: 1box \$20, 미사주: 1case \$70,

초기름: 1case \$100

헌화비: \$60

Annual Catholic Appeal

주제: Walking on the road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공지주간: 2월 4일, 5일

약정주간: 2월 11일, 12일

후속주간: 2월 18일, 19일

본당목표액: \$8,901

전례부 평협위원 교체

전례담당 봉사자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례부장으로 봉사해 주신 윤경수 율리아나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례부장: 권영기 스테파노

전례차장: 김상호 보나벤투라

2023년 교무금 약정주간

올 한해도 신자분들의 봉헌금으로 본당이 잘 운영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곧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교무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3년 1월 한달 간

2차 헌금 안내

이달 2차헌금은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모금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1월 28일, 29일

성당 시설물 사용 요구 파악

본당 시설 개방에 앞서 사용을 원하는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시설물 사용서류를 작성하셔서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성당 시설물 사용 신청서

(2) 책임면제 동의서

- 제출기간: 1월 22일 (주일) 까지 사무실 혹은 총무(배성진 펠릭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2023 해외 의료봉사단 모집

일시: 10월 16일 ~ 20일, 2023

장소: Lima, Peru (Manchay)

의료 봉사자(내과, 치과, 한의사, Chiropractor, 간호사...)와 일반 봉사자입니다. 의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회 복지부

한제노 312-771-2339

성소 후원회

가입 신청 및 문의:

유현민 아네스 847.452.5944

사회봉사회

회원 가입 및 후원신청

이 앤드류 773. 744. 4000

양 요셉피나 847. 204. 5854

연령회

연령회 가입 문의 및 연도 신청

총무 이상구 요셉

847. 409. 8552

Sangk.Lee2010@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이란 이름은 '낯익지 못하여 서먹 하거나 어색하다'는 뜻의 '설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 시작이라는 뜻의 '선다'는 말에서 '선날'로 불리다 '설날'로 변형되었다고도 합니다. '삼가다'는 뜻의 옛말 '섭다'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두루 살펴 말하자면 새로 시작하는 설레고 낯설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설날'이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 감사하고, 새해의 복을 빌어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집니다. 이날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민속을 따르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외롭습니다만 우리 믿는이들에게는 남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을 위한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만나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쌍둥이도 똑같이 보이지만 외모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성격은 더욱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데에 있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설에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하지 만 그렇지 못한 가족의 사연이 자주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 봐 설에 아예 만나지도 않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족이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상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다 보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 이 더 나은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나와 아무 상관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당연히 나와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의 마음 같아서는 주인이 언제 온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그건 종의 바람일 뿐입니다. 현명한 종은 자신의 바람대로 해주지 않는 주인을 원망하거나 나 몰라라 하며 기다리지 않는 종이 아니라, 언제일지는 모르더라도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리라 믿고 기다리는 종입니다. 복음은 이 현명한 종의 기다림이 주인과 좋은 재회로 이어졌다고 전하며 마칩니다. 설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서울 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 서울교구 주보에서

반모임

1월 지, 반장 월례 회의	1/29/23 (교중 미사 후)	유스그룹 룸
3-3 반	2/19/23 (교중 미사 후)	친절방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2,961	온라인 주일헌금	95
교무금	7,656	온라인 교무금	2,135
미사예물	830	감사금	600
설날미사	3,220	연령회후원	100
전례봉헌	300	사회봉사회	100
헌화비	180	매일미사	210

교무금 | 한형기 서석수 이현철 김세기 김정자 최상철
한창수 박민규 한경렬 이해지 황순천 함일권 김종성
박계은 공영심 김선기 이미향 김경희 하복주 이제니
채재묵 조영남 정경옥 육창환 박영선 임상모 이기형
주숙희 문광희 홍숙희 Richard Kim

온라인 교무금 1/14 - 1/20 | 김흥기 권순범 원건수
한정호 이천승 이재경 김영민 최양렬 김창호 김승재
조상윤 박성진 배영주 정유정 이은경 주피터 양희영

감사금 | 김선기 600

전례봉헌 | 서석수 100 하순정 100 채재묵 100

헌화비 | 한경렬 60 김정자 60 하복주 60

연령회 후원 | 이정애 100

사회봉사회 후원 | 이정일 100